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박 경 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번 학기 전공과목 수업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동네환경'이라는 팀 과제를 학생들에게 주었다. 학생들은 동네의 공기 질과 하천수질, 소음, 쓰레기 처리 등 생활환경과 공원이나 하천, 호수, 야생동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보행친화도,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주민을 만나 인터뷰했다.

과제 발표를 마친 후 학생들로부터 주민과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점을 들었다. 학생들의 소감은 다양했지만 '몇 년 동안 살고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동네환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

이 같은 소감은 '내가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자연자원 고갈과 에너지 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강의가 과연 의미 있는 환경교육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게 했다.

매일같이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동네환경부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가꾸어 가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환경교육이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8년 9월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을 근거로 2010년 9월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11~2015)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1일 경기도 수원시는 2018년까지 45만 전 가구가 환경교육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선언하는 등 지자체 수준에서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정책·계획, 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이것은 단지 행정기관과 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주체들만의 잔치에 그칠 수밖에 있다.

실제 지자체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환경교육 사업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수치적인 실적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환경교육의 주된 주체가 되었던 환경관련 민간단체(NPO 또는 NGO)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국민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현재도 그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의 목적과 부합하게 환경교육의 공간적 범위와 대상을 좀 더 좁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동네(또는 마을) 단위로 가야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네와 같은 작은 단위의 환경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 동네에서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해온 풀뿌리 단체를 적극적으로 양성·지원해야 한다.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동네 환경을 조사·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자체를 비롯하여 전문 연구·교육기관 등이 행정·재정 및 전문지식·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동네환경 이슈를 찾아내 이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생리과다는 빨간불

김 민 우
청담산부인과외과 산부인과 전문의

김아람(30세)씨는 1년 전부터 생리 양이 많아져 빈혈증상에 시달렸다. 생리통도 점점 심해졌으며,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다. 질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고민만하다가 주변 권유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초음파 검진 결과 자궁선근증이 진단됐으며, 자궁의 크기도 임신 10주차 가량으로 커져 있었다. 임신계획 중인 점을 고려해 자궁 절제 대신 약물치료를 6개월가량 받았다. 그러나 피부트러블과 살이 찌는 등의 부작용만 심해졌고, 증상의 호전은 없었다.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다가 최근 자궁에 손상이 가지 않는 비수술적 초음파 치료를 받았다.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 과다 생리혈, 골반통, 빈혈 등의 증상을 생리 기간 중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 여기고 참고 넘기는 경우가 있다. 상당수가 생리로 인한 현상으로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례에서 자궁선근증, 자궁근종으로 인한 전조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난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임기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

청담산부인과외과가 2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가진단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총 219명의 응답자 중 생리통, 생리량 증가, 생리기간 변화, 피로감, 빈뇨, 빈혈 등의 증상이 있다는 응답자가 다수 있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증상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79%를 차지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질환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 여성의 20~25%에서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이 발견되고 있으며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70%에서 크고 작은 근종이 발견되고 있다.

자궁선근증은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자궁내막 조직에 의해 자궁 크기가 커지는 증상이다. 자궁근육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생기는 양성종양인 자궁근종과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자궁선근증은 자궁으로 비정상적으로 침투한 자궁내막 조직이 주위의 자궁근층 성장을 촉진해 자궁이 커지게 되며, 임신 3개월차의 자궁크기만큼 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빈혈을 동반한 생리과다, 생리통, 골반통 등이 있으며 30% 정도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도 한다. 또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궁선근증의 기존 치료법은 개복이나 복강경을 통해 제거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상 자궁 근육 부위가 약해지면서 향후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비수술적인 하이푸 시술 같은 치료법은 고강도 초음파를 근종에 집중해 병변만 제거하므로 가임기 여성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으며, 임신과 자연 분만이 가능하다.

자궁근종의 수술법은 근종 제거술이나 자궁적출술, 비침습적 시술, 약물 치료 등 개인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에는 임신을 계획했거나 미혼인 여성들이 절개 수술이나 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피해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선택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생리기간 또는 배란기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은 크기가 커지거나 위치에 따라 임신에 어려움을 겪거나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합한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 고

자녀를 위한 올바른 가정교육

이 동 범
미래교육발전포럼 공동대표·전 광주교 총회장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핵가족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을 과잉보호한 결과 어린 아이들은 나약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인내심이 부족하여 자립심이 결여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가정은 인생의 출발점과 종결을 모두 지켜주는 정신적인 공간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를 배우는 최초의 학교다. 부모는 최초의 교사인 것이다. 가정이 있기에 따뜻한 부모의 인간적 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가족들간의 긴밀한 유대 속에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므로 가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터전인 '홈베이스'인 셈인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이 중요하며 자녀에게 일생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하고도 중요한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가르치는데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바로 부모인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가정교육을 보면 많은 부모들이 엄격함을 상실한 채 자녀들을 무원칙적,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모들은 이것이 무한한 자녀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부모들이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잘못된 자식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도 버리고 부모 자신도 버림받게 되는 이중적 비극을 초래하기 쉽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연적인 사랑을 제공하여야 한다. 꾸며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사랑도 아니며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해야 한다. 부모만이 진실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줄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교사가 아무리 친절하고 정성껏 아이들을 돌본다 하여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주기에는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일이어서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베푸는 사랑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에 예외는 있겠지만 부모만이 꾸밈이 없고 자연스러우면서 깊이 있는 진솔한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보상의 기대가 없다. 따라서 순수한 사랑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랑 속에서 아이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교육의 원형(元型)을 참된 가정에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교육에서 꼬인 문제의 해법을 가정교육의 방법들 중에서 찾기도 한다. 예전부터 우리 가정은 엄부자모(嚴父慈母)를 그 근간으로 했다. 옳음과 그름을 대표하는 아버지는 엄해야 하고 배려와 사랑을 대표하는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한다. 즉 자녀의 가정교육은 엄(嚴)과 자(慈)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강함과 부드러움, 차가움과 따스함, 사랑과 정이 녹아있는 곳이 가정이다. 맹목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정은 사회적 모태이며 성격이나 인격을 만드는 최초의 장소이고 문화 전승의 장소이기도 하다.

가정교육은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린 아이들은 모방심이 매우 강하다. 부모의 말투, 습관, 태도, 사는 방식, 성격까지도 보고 배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아이들은 해를 따라다니는 해바라기와 같다. 그래서 '아이는 가정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녀를 정직하고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둘째, 독립심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꼭 지켜야 할 규칙이나 법을 가르쳐야 한다. 넷째, 기본생활습관을 철저히 가르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 다섯째, 절약의 실천과 독서를 생활화하여 창의력과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 여섯째, 부모가 함께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가정은 삶을 시작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인간답게 자라는 터전이기도 하다. 가정은 인간의 정신적 모태이며 성격과 인격을 만드는 최초의 장소로써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평생 교사이며 모델이므로 부모의 역할은 한없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엄부(嚴父)와 자모(慈母)의 절묘한 이중주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아이로 영글게 하는 원동력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비양심 주차 적극 단속해야

지방자치단체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그리고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설사 이 표지가 있다 해도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이 공공연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차가능 표지만 부착해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잘 준수하고 건전한 장애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최경환·광주서부경찰서 기동순찰대

社 說

새정치 전당대회 또다시 계파싸움인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박지원·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이 17일 동반 사퇴하면서 내년 2·8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새 지도부는 차기 총선의 공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는 만큼 이번 전대 결과에 따라 당내 주도세력 교체와 야권 지형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유력 주자 3인 가운데 문 의원은 친노의 구심이며, 박·정 의원은 비노세력의 일정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계파간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이날 박주선·김동철·김영환 의원이 당 대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겠다고 밝혀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정권 창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하나 계파 전쟁으로 심각한 분열 양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15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권 주자를 3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 방식을 채택하면서 당내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컷-오프가 중앙위원 투표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박지원·정세균 의원 등 '빅 3'가 도전한다면 컷-오프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새정치연합은 정와대 문건 유출 파동 등 호재에도 불구, 지지율 반등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떠난 지 오래고, 소위 텃밭이라는 호남도 예외가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전당대회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는 계파 청산 또는 친노그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문 의원이 당권을 장악한다면 친노가 더욱더 득세할 게 분명하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이 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혈세 먹는 하마' 시내버스 대수술 시급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원하는 시내 및 시외버스의 적자보전액이 급증하고 있어 '혈세 먹는 하마'로 통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버스업자들이 수십억 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퇴직금 유용,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 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첫해 196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줬으며 7년만인 지난해에는 2배에 달하는 39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2175억 원을 쏟아 부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데도 막대한 혈세를 지원한 것은 버스업체의 적자 해소와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인건비와 유류비가 급격히 올라 지원금이 증가했다는 버스업체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검증조차 못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지원금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취약한 검증시스템이 업체의 인건비 횡령이나 부품값 빼돌리기 등 비리를 유발했고 이 때문에 적자폭 증가도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버스업체의 방만 경영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감사권이 없는데다 사업주의 이익마저 보존해 주는 그릇된 지원체계 때문이다. 버스업체의 퇴행적인 운영도 문제다. 업체들은 지금까지 시·도가 지원한 예산만 타서 썼지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등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아예 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 임금이나 유류비 결정은 적정한지, 운송수익은 제대로 계상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1년에 한번 서류나 들춰볼 게 아니라 상시 회계감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감사권을 명확히 하고 버스 회사들이 경영개선을 통해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제까지 혈세만 낭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無 等 鼓

정치인의 부정부패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 중고생의 과반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충격적인 조사 결과다.

최근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역사교육연구소는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중·고교생 1322명을 대상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은가?" 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에 전체의 59.8%(790명)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 같은 응답 비율은 지난해 50.6%에 비해 9.2%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대답은 올 40.2%로 지난해 49.4% 보다 9.2%포인트 줄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학생들의 경우 그 이유로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상대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48.0%)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정 부패한 정치인이 많다'(29.2%),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적'(12.7%), '범죄나 분단 상황으로 인한 불안'(5.8%) 순으로 나타났다.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는 중·고교생들이라면 당연히 이야기할 만하다. 유치원부터 학원에 내몰리며 초·중·고 등학교까지 오로지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올인하는 학생들로서는 입시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 부패한 정치인이 많아서' 라는 대답은 다소 의외다. 무려 30%에 달하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이를 꼽았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다.

세월호 참사와 진실 규명에 대한 정치인들의 그릇된 행태를 보면 그럴 만하다. 물론 그 일들이 아니라도 당선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는 없는 걸까. 내년에도 같은 조사가 있을 텐데 그때 가서는 부정·부패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청소년들의 응답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